

# “배려와 나눔의 씨앗’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어요”

## 애플B유치원

“아이들의 경험은 소중하다.”  
 광주시 동구 용산동 유아교육기관 애플B유치원(원장 최봉훈)은 아이들의 경험이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한 시선을 품을 수 있도록, 배려와 나눔의 씨앗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애플B유치원 원생들과 교사들이 전통한복을 차려입고 손하트를 만들어 보이며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 “소극적 아이들도 칭찬하면 자신감 향상 ‘자신의 꿈’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 최봉훈 애플B유치원 원장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나눔과 배려가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것이라 믿어요.”  
 최봉훈 애플B유치원 원장은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힘주어 말했다. 가슴 깊은 곳에 배려의 씨를 틔운 아이들이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해 세상을 바꾸어갈 것이라는 게 그의 믿음이다.

최 원장은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아이 개개인의 재능과 기질을 발견해주고 자신감을 키워주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꿈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생각입니다.”

그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아이들도 ‘잘하는 것’을 찾아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면 자신감이 향상될 수 있다”고 했다.

2014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영호남 문화대축제’에서 애플B유치원 60여명의 어린이들이 공연을 펼쳤을 때 확인했다. 아이들의 공연은 어른들에게 울림을 선사했고, 기립 박수를 이끌어냈다.

큰 무대에 올라 어른들에게 인정받은 특별한 경험은 아이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런 기억은 아이들이 자라 성장해서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감을 발휘할 원동력이 될 것이다.

최 원장은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찾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차별화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아이들이 배려와 나눔이라는 따뜻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나눔행사도 더 자주, 더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연말 이어오던 아나바다 나눔행사 외에도 다양한 나눔활동을 고민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평상시에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고,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나눔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봉훈 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남을 배려하고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배웠으면 한다”며 “아이들이 사랑과 관심 속에 진정 행복할 수 있게, 어른이 되어 밝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배려와 나눔의 씨앗을 심다=애플B유치원(원장 최봉훈)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적성과 기질을 발굴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콘텐츠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스스로 완성해가고, 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진 아이들이 그 힘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진정한 나눔과 배려를 배워나갈 수 있도록 남다른 재능기부와 나눔활동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다.

애플B유치원은 2011년 설립 이후 매년 12월을 ‘나눔의 달’로 지정하고 10년이 넘게 나눔행사를 열고 있다. 아이들은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과 문구 등 물품들을 가져와 판매하고, 수익금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후원하는 행사다.

아이들은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놀이를 경험해 경제 논리를 깨우칠 수 있고, 자연스레 나눔의 따뜻함도 경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다. 아이들의 나눔활동은 지역사회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이를 기특하게 바라보던 학부모는 물론, 지역 기관 및 단체 등 여러 곳에서 함께하고자 참여문의가 이어졌다. 그렇게 나눔행사의 규모는 커졌다.

지난달 1일 열린 ‘애플B나눔행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날 168명의 원아와 학부모, 교사 20여 명이 참여해 수익금 모으기를 진행했다.

아이들이 가져온 유아용품 뿐 아니라, 참여 연령 폭이 커지면서 액세서리와 가전용품 등 물품도 다양해졌다. 유치원 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반찬가게와 푸드트럭도 운영됐고, 이렇게 모인 수익금 460여만원은 광주시 동구청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을 돕는데 쓰였다. 행사에서 팔리지 않고 남은 물품들은 인근 보육시설에 후원하기도 했다. 아이들에게서 시작된 작은 나눔이 지역사회로 퍼져나간 것이다.

적성·기질 발굴 프로그램 다채...해마다 ‘나눔의 달’ 행사  
 환경공단·어린이교통공원 등 견학...무등산서 ‘숲 체험’도  
 VR시설 구축...운동·직업 체험부터 아마존 체험까지 흥미

또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배운 사물놀이나 재롱 작품 등을 통한 재능기부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어르신들 앞에서 그동안 갖고 있던 사물놀이 실력을 뽐내고, 율동도 선보이는 위문공연은 빼놓을 수 없는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이밖에 가족동반 뮤지컬 등 공연 관람행사를 통해 수익금을 기부하고, 저금통 캠페인을 통해 모은 성금을 이웃을 위해 내놓는 등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다양한 나눔과 재능기부로 배려와 나눔을 몸소 체득하고 있다. 이런 나눔활동은 아이들의 몸과 마음, 생각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나보다 주변을 살피볼 수 있는 너른 시야와 마음을 싹 틔워주는 토대가 되고 있다.

◇아이들의 경험이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게=애플B유치원은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국악을 꼽을 수 있다. 우리 민족 문화의 멋을 알고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해 새로운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협주를 통해 협력을 배울 수 있고, 음악성과 감수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

특히 국악활동은 초·중등교육과도 연계된다. 유치원에서 국악의 장단을 몸에 익힌 아이들은 초·중등학교를 진학해 풍물대 등 동아리 활동에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한다.

여기에 노인요양시설 위문공연을 비롯해 크고 작은 무대에 올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선보이면서 아이들은 성취감과 자신감도 얻을 수

있다.

애플B유치원의 진급율이 높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만 3세에 입학해 졸업할 때까지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는 뜻이다. 3년간 똑같은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아이들은 쉽게 흥미를 잃는다. 이에 따라 늘 새로운 것을 경험시켜주고, 체험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광주환경공단과 어린이교통공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견학 등 매달 3~5차례 체험학습을 추진하고, 가까운 무등산국립공원을 찾아가 숲 체험도 자주 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외부활동이 어려워지자 아이들의 소중한 경험을 위해 유치원 강당에 VR(가상현실) 체험시설 설비를 구축하고, 아이들이 농구와 축구, 직업체험, 모션플레이 등 교육용 게임을 즐기며 각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또 정글을 꾸며 악어를 타고 늪지대를 건너 공룡도 만나볼 수 있는 ‘아마존 체험’을 비롯해 도르래와 굴삭기 장비를 아이들이 직접 조종해 모래를 옮겨보고, H빔을 쬐어 세계 여러 형태의 집을 지어볼 수 있는 ‘건축사 체험’도 운영하는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실행에 옮겼다.

최봉훈 원장은 “어린 아이들이 세상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거름 삼아 주제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늘 고민하고 있다”며 “다양하고 색다른 체험 수업으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가며 매일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쌓아주고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